

‘제2 이루다 사태 막는다’… 네이버 등 AI 윤리 적용 본격화

정부, 구체적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카카오, 기업 첫 알고리즘 윤리현장 네이버, 학계와 협력… 지속적 개선

정부가 인공지능(AI) 윤리 규정을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 기업들도 AI 윤리원칙 적용에 관한 후속작업에 나서면서 AI 윤리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월 서울대 AI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네이버 AI 윤리준칙’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공개된 초거대 AI 등에 AI 윤리규정을 적용했으며, 추후 AI윤리 적용 사례 등을 담은 AI 리포트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현장’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에 나서는 등 AI 윤리 적용을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업들이 AI를 개발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담은 AI 자율점검표를 공개했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현장.

/카카오 사이트 갈무리

◆네이버·카카오 AI 개발에 AI 윤리 적용 위한 방안 마련 ‘분주’

네이버는 AI 윤리규정의 핵심인 ‘인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AI가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서울대 등 학계와 협력해 지속적인 규정 개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울대 AI정책 이니셔티브와 사례 중심 AI 리포트를 발간해 공개할 계획이다”며 “AI 리포트를 통해 AI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각 서비스에서 AI 윤리준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천되는지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의미

를 살펴보고 사례가 축적되면 AI 윤리준칙을 수정하고 세부 영역도 추가하는 방안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또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AI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적용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AI 윤리준칙의 노하우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트업에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8년 알고리즘 윤리현장 발표에 이어 2020년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현장을 개정했으며, 지난 1월 ‘카카오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증오발언 근전

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는 등 후속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내에서 AI 개발 및 운영시 AI 윤리현장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카카오 크루가 알아야 할 윤리경영’에 대한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며 “이 교육은 기존 윤리경영 프로그램에 AI 알고리즘 윤리 교육 과정을 신설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세부 지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서비스 개발자 및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참고사항을 안내해 AI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31일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공개해 현장 적용을 독려하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발표한 AI 윤리규정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는데, 점검표는 상세한 내용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율점검표는 6가지 원칙과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

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은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등이다. 또 8단계의 주요 점검항목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 ▲AI 서비스 관리 감독 ▲이용자 보호 ▲자율보호 활동 ▲AI 윤리 점검 등이다.

기획 단계부터 사전 점검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인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하고,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노출 및 해킹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안전하게 파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이루다 사태’에서도 가명처리를 미리 진행했음에도 처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 큰 문제가 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명처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야 적절한 수준인 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정보주체 동의는 어떠한 추가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SK에너지, 전기차 충전 생태계 확장 ‘속도’ 수명 최대 4배 늘린 ‘ZNS SSD’ 출시

소프트웨어와 업무 협약 저탄소·친환경 기업 전환 다양한 사업 진출 모색

SK에너지가 소프트웨어와 전기차 충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주유소네트워크를 가진 SK에너지와 전기차 충전 어플리케이션 ‘이브이 인프라’(EV Infra) 운영사인 소프트웨어가 손잡고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을 더욱 확장기로 한 것이다.

SK에너지는 2일 ESG(친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기반해 저탄소·친환경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

고 밝혔다.

SK에너지가 가진 가장 큰 인프라인 주유소·LPG충전소를 거점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분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는 국내 전기차 사용자의 90% 이상이 이용하는 국내 1위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 플랫폼 ‘이브이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를 통해 실시간 충전기 상태 정보, 충전 포인트 등을 제공하며 친환경차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 간편결제, 커뮤니티 운

영 등 전기차 충전 고객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충전 서비스와 관련된 솔루션 개발에 공동 협업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전기차 충전 시장의 성장속도에 맞춰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SK에너지 오종훈 P&M CIC 대표는 “양사간 긴밀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전기차의 확산을 앞당기기 위해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기차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삼성전자, 차세대 기업 서버용

삼성전자가 효율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서버용 SSD를 내놨다. 삼성전자는 ZNS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용 ZNS SSD PM1731a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6세대 V낸드 기반 4TB, 2TB 용량 2.5인치 제품으로, 하반기 양산 예정이다.

ZNS는 SSD 저장 공간을 나누고 용도와 사용 주기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해 효율성을 높여주는 차세대 기술이다. OP 영역을 필요로 하지 않아 용량을 최대한 쓸 수 있고, 기존 SSD의 ‘가비지 컬렉션’ 작업을 없애 수명도 3~4배 늘어난다.

이를 통해 폭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일뿐 아니라, 수명 연장을 통한 ESG 측면 긍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듀얼포트도 지원한다. 에러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스토리지 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삼성전자는 ZNS SSD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동으로 ZNS 기술의 에코시스템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xNVMe’를 통해 개발자들이 다양한 사용환경에서 SSD를 최적의 성능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ZNS 기술도 추가해 개발자들이 보다 쉽게 ZNS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용 기자

쌍용차, 상품성 강화한 ‘코란도 R-플러스’

블랙 색상 추가

쌍용자동차가 코란도 스페셜 모델인 R-Plus의 외관 색상을 확대하고 블랙 색상을 추가했다.

2일 쌍용차에 따르면 코란도 R-Plus는 기존 블랙루프의 투톤 외관 색상으로 그랜트 화이트 또는 플래티넘 그레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번 색상 추가로 블랙 외관 색상의 ‘R-Plus 블랙’도 추가로 운영된다.

R-Plus 블랙은 차체에 블랙 색채와 블랙 패셔너블랙 및 스포일러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2열 도어와 아웃사이드 미러에 레드 포인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인터페이스 블레이즈콕핏(Blaze

Cockpit) 및 운전석 전동시트, 1열 통풍시트와 전자식 파킹브레이크(EPB), 풀 LED 헤드램프, 전방주차 보조 경고 시스템 등 안전 및 최고급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가격은 기존 R-Plus 모델과 동일한 2715만원이며, 트림별로 ▲C3 2253만원 ▲C3 플러스 2346만원 ▲C5 2391만원 ▲C5 플러스 2573만원 ▲C7 2903만원이다. 디젤 선택시 195만원이 추가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R-Plus 모델은 올해 5월까지 코란도 전체 판매량 중 23.1%를 차지했으며, 스타일리시한 개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유저들에게 인기 높아 판매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아시아나

미주 노선 탑승객 이벤트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로 향하는 비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기내와 이파이 이용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일부터 7월 기간 중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미주 노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달 1일부터 25일 기간 내 탑승하는 고객 중 선착순 300명에게 기내 와이파이 무제한 이용쿠폰을 증정한다고 2일 밝혔다. (단, 편도 1회 한정)

미주행 항공권 예매완료와 동시에 고객이 직접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내 메신저로 와이파이 이용 쿠폰번호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김수지 기자

LG전자, 러시아 미술관서 시그니처 R 소개

VVIP 대상 행사

LG 롤러블 TV가 예술들과 어우러져 고객들을 만났다.

LG전자는 최근 러시아 푸시킨미술관에서 VVIP를 상대로 시그니처 올레드 R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객들이 올레드 R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과 접목해 구상됐다. 미술관 메인홀 중앙에서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고, 유명 발레단의 공연도 선보였다. 공연에 맞춰 화면이 말려들어갔다 펼쳐지는 퍼포먼스로 미술관 예술 혁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푸시킨 미술관에 올레드 R을 전시한 바



푸시킨 미술관에 전시된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 R. /LG전자

있다. 불가리아와 벨라루스 등 럭셔리 브랜드와 협업해 초프리미엄 마케팅도 진행했다.

LG전자 러시아법인장 노영남 상무는 “초프리미엄 고객에게 LG 시그니처 올레드 R가 제시하는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